‘無’, 인간 본래의 청정성 지닌 마음

지원 스님의
선문답 이야기 ③




스님이 무문관 대문을 굳게 걸어잠그는 모습.

公案에 대한 의문 방식 ‘왜’ 아닌 ‘무엇’
‘왜’의 화두 방식은 분별심만 키울 뿐
반드시 ‘무자’라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第一則 : 趙州狗子(조주의 개)

趙州和尙, 因僧問, 狗子還有佛性也無, 州云, 無,

趙州和尙, 因僧問. 조주 화상에게 어떤 스님이 물었다
狗子還有佛性也無.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州云, 無.조주 화상이 말했다. “무!”

우리나라도 반려견 1천만 시대에 돌입되었다고 한다. 견공에 대한 배려는 사람 이상으로 높다. 어떤 면에서는 견공이 사람 이상으로 극직한 대우를 받고 있다. 애견카페, 애견마켓, 애견펜션 등등. 이러한 시대에 조주 스님이 계셨다면 어떤 법어를 내리셨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개에 대한 불성을 묻는 〈무문관〉 제 1칙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 조주 스님은 개의 불성에 대해 ‘有’ (있다)라고 대답하기도, 또 어느 때는 ‘無’ (없다)라 하기도 한다. 〈조주록〉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한 스님이 조주 스님께 물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조주 스님이 대답 했다.
“집집마다 문 앞은 장안으로 통한다”

여기서 모든 길이 장안으로 통한다는 것은 일체 중생에게는 불성이 있다는 대화의 근거로 〈종용록〉 제 18칙에 보면 개에게도 불성이 ‘있다’ ‘없다’ 의 대답이 나온다.

그 전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어떤 스님이 조주 스님에게 물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있다”
“불성이 있는데 왜 짐승으로 태어났습니까?”
“개가 알면서도 일부러 범했기 때문이다”
또 어떤 스님이 다시 조주 스님에게 물었다 .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일체중생 모두 불성이 있는데 어찌해 개에게는 없습니까?”
“개에게는 업식(業識)이 있기 때문이다”

이 공안에서 이후에 유(有)와 무(無)가운데 무(無)에 대해서만 주목한 까닭은 무엇일까?

부처님께서는 일체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수가 있다(一切衆生皆有佛性)고 하셨는데, 왜 질문을 받은 개에게 없다고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있다.

가령 “개에게는 업식이 있기 때문에 부처가 될 가능성이 없다”는 이 말은 개는 번뇌망상과 업식 때문에 부처가 될 가능성이 없다는 조주 스님 말씀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준엄한 말이다. 수행자라고 한 네 놈도 업식에 놀아났다가는 세세생생 개처럼 살 것이다. 개가 불성이 있는지 없는지에만 집착하지도 말고, 나 조주의 대답만 듣고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내 자신의 불성도 알지 못하면서 개의 불성까지 알려고 하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입만 살아 가지고 불성이 어떻고, 이곳저곳 기웃거리고 어슬렁거리다가는 개처럼 된다는 경고의 메시지인 셈이다.

조주화상에게 무(無)란 분별심이 없는 본래 청정성을 지닌 무심(無心)이다. 이것은 조사의를 가지고 망심을 끊어가는 화두라는 방편으로 삼는 간화선 수행에서 대표적 공안 가운데 하나이다. 조주화상의 무자 공안도 마찬 가지이다. 화두를 드는데 있어서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공안에 대한 의문 방식이 ‘왜’가 아닌 ‘무엇’이라는 것이다. 곧 ‘왜’의 방식은 화두에 대한 분별심만 키울 뿐이다. ‘왜’라고 묻는 것은 과학이고 수학일 뿐이다. 화두는 과학도 아니고 수학도 아니다. 논리를 초월한 소위 초월 논리이다. 따라서 반드시 ‘무자’라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無門曰】 參禪須透祖師關, 妙悟要窮心路絕. 祖關不透. 心路不絕. 盡是依草附 木精靈. 且道. 如何是祖師關. 只者一箇無字. 乃宗門一關也. 遂目之曰禪宗無門關. 透得過者. 非但親見趙州. 便可與歷代祖師. 把手共行. 眉毛廝結. 同一眼見. 同一耳聞. 豈不慶快. 莫有要透關底. 麼將三百六十骨節八萬四千毫竅. 通身起箇疑團. 參箇無字. 晝夜提撕. 莫作虛無會. 莫作有無會. 如呑了箇熱鐵丸. 相似吐又吐不出. 蕩盡從前惡知惡覺. 久久純熟. 自然內外打成. 一片如啞子得夢. 只許自知. 驀然打發. 驚天動地. 如奪得關將軍大刀入手. 逢佛殺佛. 逢祖殺祖. 於生死岸頭得大自在. 向六道四生中. 遊戲三昧. 且作麼生提撕. 盡平生氣力. 擧箇無字. 若不間斷好. 似法燭一點便著.

無門曰.
參禪須透祖師關,
妙悟要窮心路絕.
祖關未透,心路不絕,
盡是依草附木精靈.
且道,
如何是祖師關.
只者一箇無字,
乃宗門一關也.

遂目之曰禪宗無門關.
透得過者,
非但親見趙州,
便可與歷代祖師,
把手共行,尾毛廝結,
同一眼見,同一耳聞,
莫有要透關底嫉.

將三百六十骨節,
八萬四千毫竅,
通身起箇疑團,參箇無字
晝夜提撕.莫作有無會,

如呑了箇熱鐵丸,

相似吐又吐不出.
蕩盡從前惡知惡覺,
久久純熱,
自然內外打成一片
如啞子得夢,只許自知,
驀然打發,驚天動地,
如奪得關將軍大刀入手
逢佛殺佛,逢祖殺祖,

於生死岸頭得大自在,
向六道四生中,遊戲三昧.

且作麼生提撕,盡平生氣力,

擧箇無字.若不間斷,
好似法燈,一點便著.

무문은 말한다.
참선은 조사 관문을 꿰뚫어야 하고,
미묘한 조사의 관문을 꿰뚫지 못하고
심로가 끊어지지 않았다면
귀신류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말해 보라!
어떤 것이 조사의 관문인가.
다만 ‘무’ 라는 한 글자가
바로 선종의 한 관문이다.

이것을 〈선종무문관〉이라 한다.
무문관을 뚫고 지날 수 있는 사람은
조주 스님을 직접 친견 할뿐만 아니라
역대의 조사(祖師)들과 더불어
손을 잡고 함께 하며, 눈썹을 맞대고
한 눈으로 함께 보고 들을 수 있으니,
어찌 이 관문을 꿰뚫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삼백 육십 개의 뼈마디와
팔만 사천 개의 털구멍에
온몸으로 의심 일으켜 ‘무’ 자 참구해
밤낮으로 놓치지 말고 의심하라. ‘있다 없다’ 는 이해로 짓지 말라.
이 공안을 쇠구슬을 입에 문 것처럼 간직하라.
토하고 또 토해도 나오지 않게끔 하라.
그릇된 지각과 관념을 탕진해 버리고
오래 오래도록 순숙하게 하면
자연히 안팎이 한 덩어리 이어지는데
벙어리가 꿈 꾼 것같이 스스로 알 뿐
문득 드러나면 천지가 놀란다.
관우장군의 큰칼 빼앗아 손에 잡고서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며,
삶과 죽음의 언덕에서 큰 자유를 얻어
육도사생의 가운데에서도 삼매를 누리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무엇을 들고 있을 것인가.
평생의 기력을 다하여
이 ‘무자’에 매달려라. 만약 쉬지 않고 정진하면
법의 촛불에 불을 댕기는 것과 같다.

【頌曰】 狗子佛性, 全提正令. 纔涉有無, 喪身失命.

頌曰
狗子佛性,全提正令.
纔涉有無,喪身失命.

게송으로 말한다.
개의 불성, 불법을 온전히 드러냈도다.
조금이라도 유나 무에 걸리면 목숨을 잃는다

조사선(祖師禪)은 보리달마로부터 연유하는 선풍으로서 조사선의 조사는 본래 달마조사를 의미한다. 달마로부터 연유하는 그와 같은 조사선풍은 당나라 시대에 크게 발전되었다.

삶에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일상의 모습 그대로였다. 때문에 차를 마시는 것 그 자체야말로 조사선 가풍에 가장 철저한 행위이고 인간의 꾸밈없는 모습 그대로였다. 그래서 조주는 신참자나 구참자나 그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차를 권했다. 어떤 사람이 차를 권하면 상대방은 그 차를 받아 마시는 것이 그대로 진리의 작용이고 깨침의 행위였다. 조주는 바로 그와 같은 도리를 일러준다. 그러나 차를 입에 물고 있으면서도 그와 같은 도리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승은 어디까지나 자신이 책임져야 할 일이다.

그토록 자상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그 곁에서 시봉하던 시자마저도 아직은 그와 같은 도리를 모르고 있었던가보다. 때문에 왜 신참자와 구참자에게 똑같이 차를 권하는지 그 이유를 따져 물었다. 조주는 그와 같은 시자에게도 여전히 차를 권하였다. 그런데 시자는 그 차를 마시기 전에 다시 의문을 가졌다. 왜 자기한테도 똑같이 대하는 것인지를. 조주는 온갖 부류의 사람들을 제접하는 선사로서 대단히 능수능란한 수완을 지녔다. 그래서 소위 ‘조주고불(趙州古佛)’이라고 불렸다.

그 당시는 당나라가 멸망하고 국가가 사분오열되어 각축전을 벌이던 오대(五代) 시대였다. 조주가 오랫동안 주석한 하북성 조주의 관음현은 사통팔달 길목이었기 때문에 항상 많은 사람들이 오고갔다. 때문에 진득하게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제자가 없었다. 그 점이 곧 조주가 모든 부류의 선자를 교화할 수 있는 기회였고, 또한 어떤 선풍에도 얽매이지 않는 조주의 독특한 선풍을 진작할 수 있는 토대이기도 하였다. 그와 같은 가풍의 형성은 조주가 일찍이 사미시절 때부터 대단히 뛰어난 선기를 지녔던 것과도 관련이 깊다. 일례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조주가 아직 구족계를 받지 않았을 때 지양의 남전보원을 참문했을 때였다. 남전이 누운 채 물었다.
“요즈음 어디 있다가 왔는가”
“서상원(瑞像院)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상서로운 코끼리(瑞像)는 보았던가”
“서상은 보지 못하고 단지 누운 여래만 보았을 뿐입니다.”
누워 있는 여래는 곧 남전을 가리킨 것이었다. 그러자 남전이 벌떡 일어나 앉더니 물었다.
“그대는 모시고 수행하는 스승이 있는가 없는가.”
“스승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대의 스승이 누구인데 그런가.”
그러자 조주가 남전 가까이 다가가더니 말했다.
“한겨울 엄동설한에 스님의 존후가 만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남전을 스승으로 모시고 싶다는 제스처였다. 이에 남전이 그릇으로 여겨 곁에 두고 가르쳤다.
어느 날 조주가 남전에게 물었다.
“도(道)란 무엇입니까.”
남전이 말했다.
“평상심(平常心)이 곧 도이니라.”
평상심이란 본래청정한 마음으로 애초부터 구비하고 있는 인간의 본래모습을 가리킨다.
“그러면 그와 같은 도를 가까이 해볼 수 있겠습니까.”
“가까이 하려고 하면 곧 어그러지고 만다.”
“그러면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도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도는 그것을 알고 모르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안다면 망각(妄覺)이 될 것이고 모른다면 무기(無記)가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의심이 없이 도에 통달하고 보면 마치 만고불변의 허공과 같아 탁 트여 걸림이 없다. 그러니 어찌 억지로 옳다 그르다 하겠는가.”
이에 조주가 그 자리에서 깨달았다.

〈前 조계종 포교원장, 육지장사 회주〉

한국불교의 미래를 리드하는
동방불교대학이 **새로운 인재**를
기다립니다.

동방불교대학 2019학년도
후기 신입생 모집 공고

입학문의 www.dongbang.org
한국불교태고종 종립 **동방불교대학 교학처**
(우)03062,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길31(사간동 112)
Tel 02)745-2030 010-7236-0900 Fax 02)739-3470

모집요강
1. 본교는 본 종단의 종법(교육법 제19조/22조)이 정한 기본교육 기관으로서 출가득도자의 의무교육기관이다.
2. 본 종단의 합동득도수계산림을 통해 사미(니)계를 수지한 자 및 정사(재가승)는 본교에 입학해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승적취적 및 법계 등 각종 자격고시 응시자격을 부여받는다.
3. 본 종단으로 전종하여 입적할 승려는 본교에 입학해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한다.
4. 범패학과 신입생은 매년 1학년 입학을 원칙으로 한다.(편입학 불가)
5. 본교가 개설하고 있는 모든 학과 공히 출가자(사미/사미니 포함)와 재가자 모두 응시 가능하다.
6. 본교는 한국불교태고종이 설립한 종도양성 의무교육기관으로서 정부당국의 인가여부와 무관하다.

지원자격 ※ 본교 지원자는 공히 다음 사항 중 한 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1. 본 종단의 합동득도수계산림을 통해 사미(니)계를 수지한 자 및 정사(재가승)로서 교육이수의무 대상자
2. 본 종단으로 전종하여 입적한 승려로서 교육이수의무 대상자
3.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불교교학 · 불교의식을 수학하고자 하는 자
4. 본 종단 간부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불교교학 · 불교의식을 수학하고자 하는 자

모집인원 및 편제 ※ 접수인원 미달 시 폐강될 수 있습니다.
모집학과 불교학과(2년제 정규반) **모집인원** 00명
교육비 원서접수 전형료 : 5만원 | 입학금 : 20만원 | 등록금 : 학기당 100만원
계좌번호 : 농협 301-0212-6468-11 한국불교태고종 동방대불원
특전
- 승려가 동방불교대학 졸업시 선덕 법계 품수
- 동방불교대학 졸업후 사교/대교(2년) 졸업 시 중덕 법계 품수

전형일정
1. **원서 교부 및 접수** : 2019년 7월 15일 ~ 8월 23일
- 인터넷 교부 : 동방불교대학 홈페이지 - www.dongbang.org
- 방문 및 우편접수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길31(사간동 112) 동방불교대학 교학처
- 서류심사 : 2019년 8월 26일(입학전형의 서류심사는 학사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2. **합격자 발표** : 2019년 8월 27일(화) | 개별통지 및 본교 홈페이지

접수서류 ※ 우편접수 및 방문제출
1. 입학원서(소정서식) 1부
2.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3. 기본증명서 1부
4. 수계증 사본 1부(해당자)
5. 승적 증명서 1부(해당자)
6. 종단간부 추천서 1부(해당자)
7. 사진 : 반명함판 3매, 명함판 2매 (득도수계자는 가사장삼 수한 모습)